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아?"



김빛이라 기자



운창호법 통과촉구운동을 벌이는 친구들

정치부 기자들은 꿈쩍없이 국회에서 새해를 맞을 참이었다. 싸우고, 반발하고, 협상하고, 타결하는 게 일상인 국회라지만, 여느 때처럼 한 해를 보내는 게 유독 아쉬운 시점이었다. 올해만큼은 국회라는 공간에서 꼭 되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사건’ 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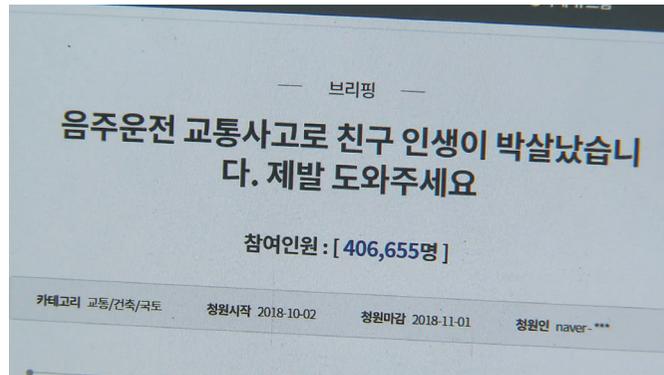
그 주인공은 정당도 정치인도 아니었다. 군에서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20대 청년의 죽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의 등장, 통과부터 시행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은 ‘운

창호법’ 이었다. 그리고 ‘운창호’ 라는 이름이 명예롭게 기억되도록, 슬픔을 던지고 행동에 나섰던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이야기였다.

나는 창호 씨 친구들과의 첫 만남이 너무도 생생하다. 국회 정론관을 찾은 젊은 청년들이 며칠 밤을 꼬박 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안을 만들어 왔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제 친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창호는 다른 사람이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것에 분개해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정신을 이어나 갔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친구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이런 행동을 하러 국회를 찾아올 수 있었을까.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 ‘윤창호’는 어떤 사람일까. 기자회견이 끝난 뒤 따로 만난 친구들은, 창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줬다.

윤 씨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위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었다. 사고 6개월여 전, 친구들과 뉴스를 보다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나오자 창호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했던 이야기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만약 창호가 이 상황이었다면 뭐라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청와대 청원 글을 올리면서 법안 발의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창호였으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창호는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윤 씨 친구들이 만들어 온 법안을 받아본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반응도 놀라웠다.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 현행법을 왜 바꾸고 상한선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 이유까지 담겨 있어 원안 그대로 발의해도 손색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윤창호 씨 친구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글

당일 9시뉴스 보도를 준비하면서, 윤 씨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드려보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몇 번을 망설였다. 전화를 드리는 것이 맞을까. ‘하필이면 그 시각’에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 신호를 기다리던 아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그러나 친구들만큼 침착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이어졌다. 방송을 통해 친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린다는 마지막 이야기에 나온 답변은 9시뉴스에 그대로 전달됐다. “이렇게 법안이 발의되고 어떻게 진행돼가는지, 창호가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생명의 끈을 아직도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염원에 응답하듯 며칠간 포털사이트마다 ‘윤창호’, ‘윤창호법’이 검색어에 올랐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기자들의 도움이 더없이 절실했다는,

윤 씨 친구 김민진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청와대 청원은 벌써 40만 명을 넘어섰지만 국회에선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민진 씨에게 전화를 걸자, 마침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을 신청해 국회로 향하는 길이라고 했다. 거리에서 모은 국민의 서명을 한 묶음 전달받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후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빠른 진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진 씨의 표정은 어두웠다. “법사위 소위에서, 다른 범죄와의 양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 이 대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대요. 그렇다면 다른 범죄들도 상향평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윤창호법’은 가해자가 최소한 실형을 살도록 만드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받은 서명용지를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간 친구들

게 목적이예요.” 이야기를 들은 뒤, 법사위에 소속된 의원실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봤다. 이야기대로였다. 양형의 형평성, 현실적인 법적 여건들을 고려해야 해서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들이 이어졌다. “법은 법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이해하지만, 다른 법들은 그럼 어찌라고요. 음주운전만 살인죄처럼 형량을 높이면 법 체계가 엉망이 돼요.”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판결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실형을 살도록 해야 실질적인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이란 것이 친구들의 법안 발의 취지인데, 이대로라면 이름만 ‘윤창호법’인 다른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

그사이 기다리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46일을 버티던 창호는 끝내 세상을 떠났고, 국회는 야당의 보이콧으로 ‘윤창호법’을 비롯한 모든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정지됐다. 친구들은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국회에 와 있느라 임종의 순간을 함께하지도 못했다.

드디어 ‘윤창호법’에 대한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날, 국회에서 민진 씨를 다시

만났다. 법사위 소위에서 세부 내용이 협의돼 통과되면, 사실상 이후 열릴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는 순조롭다. 법안 통과와 9부 능선인 셈이다. 부산에 있는 윤 씨 부모님 댁에서 잠시 머무는 중이던 민진 씨는, 걱정이 돼 이른 아침 서울에 올라왔다고 했다. 민진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국회 5층 법사위 소위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속보 대부분에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살인’으로 보고, 처벌 수준을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높아졌다는 간략한 내용이 담겼다.

윤창호법 통과 직후 김민진 씨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친구들은 예상했다는 듯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반쪽짜리 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확대되는 안이 통과됐는데, ‘윤창호법’ 원안대로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5년 이상’의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는 내용이었다.

소위에서 제대로 된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뉴스를 통해 꼭 알리겠다는 약속을 했던 터라, 민진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곧바로 진행했다. “3년과 5년, 2년밖에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선 김민진 씨가 KBS 인터뷰를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다.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법정형이 3년이 되면 작량감경이라는 판사권한으로 6개월 정도 감형될 가능성이 높는데 법정형 2년 6개월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결국 실형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실질적인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윤창호법’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국회의원들도 수십 년간 못 만졌던 법안을, 친구들이 이 정도로라도 바꾼 건 정말 대단한걸요”라고 말했다. 민진 씨는 이대로 전체회의에 통과된다 해도 다시 법안을 발의할 거라고 답했다. 무엇이든 가능하겠단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윤창호법’은 법사위 소위에서 결정된 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이런 신속한 처리

는 국회 역사상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평도 함께였다. 내가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었다. 마침, KBS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왔다. 반쪽짜리 ‘윤창호법’ 통과를 알리는 9시뉴스를 만든 뒤, 밤 10시가 넘어 시작된 녹화. 취재하는 동안 친구들의 노력을 본 만큼에 비하면 내 짧은 리포트들은 한없이 아쉬웠던 터라, 늦은 시간에도 민진 씨에게 연락했다. 흔쾌히 전화 연결에 응한 민진 씨는 ‘윤창호법’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당차게 일을 진행해온 소회를 들려줬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세상이 바뀌고 인식까지 변화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은 않은 점도 있어요. 음주운전의 경우도,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는 인식을 정립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누구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날이 올 거라는 걸 믿어요. 그 인식을 정립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언론인께서 그 소명을 다해주세요.” 민진 씨의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진심은, 내 1분 30초짜리 리포트 몇 개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었기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전해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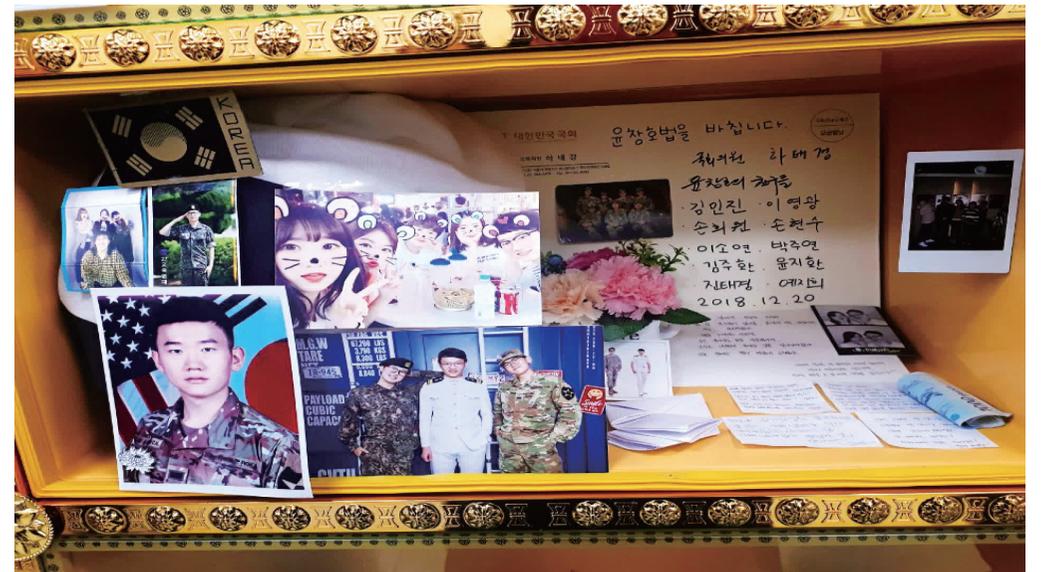
“날도 추운데, 국회까지 또 와줘서 고마워요.” 민진 씨를 다시 만난 건, 숨 돌릴 틈 없이 일거리가 쏟아지던 연말이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여야가 며칠째 격돌 중인 상황이었지만, 올 한 해 국회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더 조명하고 싶었던 터였다. 민진 씨는 국회를 상징하는 표식을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다시 섰다. 뉴스 인터뷰로는 다 나가지 못한 그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본다. “누군가는 ‘그게 너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어도 ‘국민’이란 사실은 변함없잖아요.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 준 권한일 뿐인데, 의원들이 본인만의 특별한 권리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법안이, 협상을 위한 매개로 쓰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국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배웅하는 길, 민진 씨는 “참 가슴 아픈 게 하나 더 있었거든요”라며 이야기했다. 기사 댓글에 “왜 너는 친구가 죽었는데, 웃음기를 띤 생글생글한 얼굴로 인터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참을 수 없이 슬펐다고

했다. 친구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말할 때 만큼은 정말 울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다. 회의적인 시선들과 싸워야 했지만 몇 달 새 더 담대해진 청년이었다. ‘윤창호법’의 이야기를 또다시 뉴스로 만들던 12월 31일 밤, “2018년의 마지막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민진 씨의 문자가 도착했다.

거창한 단독 취재 후기도 아니지만, 이렇게 글을 써 내려온 이유는 누군가에겐 통과가 절실했을 ‘법안’에 대해 관심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록이다. ‘윤창호법’이 통과된 2018년, 발의된 상태 그대로 계류돼 있는 법안은 11,949건이나 된다. ‘000 의원, 000법안 발의’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기사가 쏟아질 땐 마치 법

윤창호법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를 돌며 의원들을 설득한 친구들



친구들은 윤창호 씨의 영전에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바쳤다.

안이 곧 처리될 것 같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어떤 법안은 그저 한 시민의 희생과 노력에서 출발한 법안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자 한다.

글을 쓰며 오랜만에 민진 씨에게 연락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음주사고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올 하반기 ‘윤창호법2’를 준비하고 있었다.

실제 ‘윤창호법’ 시행 직후부터 석달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54.8% 줄었다는 경찰청발 보도가 나

왔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다 누군가는 핸들을 놓은 것이다. 누군가의 허망한 죽음을 막고, 누군가의 가족과 친구를 지킨 것이다. 정말로, 한 시민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도, 언론도 아니다. 그저 용감한 시민의 발걸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나는,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하는 것이다. 창호 씨의 꿈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김민진 이영광 손희원 손현수 이소연 박주연 김주환 윤지환 진태경 예지희, 10명의 친구들에게 존경의 마음과, 고 윤창호 씨에게 애도의 뜻을 포함합니다. 🙏